

# 김영록 지사, 한류 거점 캄보디아서 팔목 성과 올려

### 농수산물 판촉...경쟁력 입증 김·미역 등 36종 선보여 호평 보건의료 분야 교류 활성화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캄보디아를 방문,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보건의료 협력 강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15일 전남도에 도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북서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이온몰 센썬 시티'에서 '전남 케이-푸드(K-Food) 판촉전'을 열고 해조류와 장류 등 36종의 전남산 제품을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판촉전은 전남도의 동남아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케이-콘텐츠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동남아 시장에서 전남 식품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운영됐다.

행사에는 캄보디아 유통기업 캄코브라더스(주)의 킨 삭(Kin Sak) 대표와 정중웅 고문, 언 소파(Un Sopha) 이온캄보디아 이사, 정명규 재캄보디아 한인회장, 송동일 재캄보디아 농산협회회장을

비롯한 현지 경제·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일반 소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시에선 전남 대표 수출기업 ㈜홍일 식품의 김, 미역, 다시마를 포함해 고추장, 찜장 등 총 36종의 전남산 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 '렝(Leng)'과 함께 김밥과 미역국을 직접 만들고 나눠 먹으며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큰 주목을 받았다.

캄보디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수출시장으로, 2024년 전남의 캄보디아 수출액은 약 441만 달러 규모다. 이중 조미김(66만 달러),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67만 달러) 중심의 식품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물 가공식품, 장류, 전통 주류 등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촉전은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전남의 맛은 청정한 바다와 비옥한 들녘에서 나온다. 판촉전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과 전남의 건강한 맛

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물식품이 세계적인 식탁 위에 오르도록 글로벌 판촉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재 미국, 베트남, 태국 등 13개국에 총 31개의 상설판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유통사와의 정기 수출상담회, 상설판매 확대 등 실질적 협력 강화는 물론 프놈펜 외 지역으로의 시장 확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김 지사는 농수산물 판촉전에 이어 프놈펜에서 치앙 라 캄보디아 보건부장관, 렝 다라 캄보디아의사회장을 비롯한 고위급인사, 최은창 전남도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 회담을 진행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캄보디아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내 의료환경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공보건과 질병 예방 협력 사업 추진 △두 지역 보건 의료 정책과 경험 공유 △의료인력 교류, 보건교육, 의료봉사 활동 등이다.

전남도의사회는 그동안 캄보디아 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이온몰 센 썬 시티에서 열린 '전남 K-푸드 판촉전'에 참석,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 '렝(Leng)'과 함께 김밥과 미역국을 직접 만들어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엠립·프놈펜(2018년), 보삐시(2023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고, 응급차량과 소방차량·의료장비 등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의사회와 캄보디아 의사회의 보건의료 협력, 의료기술 지원, 인력 양성, 의료봉사 등 상호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캄보디아와의

귀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번 협력이 두 나라의 상호 발전과 국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광주시의회, 민간위탁 사업 관리부실 감사 요청

### "수수료율 등 들쭉날쭉"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의 다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를 요청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임석 의원은 최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 회계연도 광주시 결산심사'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수수료 지급 형평성 논란과 위수탁 계약서의 부실함 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총 73개의 민간위탁 사업 중 13곳(18%)에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

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하다"며 "특히 동일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수수료율이 0.91%~5.0%로 들쭉날쭉하다"고 밝혔다.

이어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은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았고, 일부 부서들은 수수료에 대한 관련 지침이나 계약서 내 수수료 조항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동일한 조항이 계약서마다 반복 기재되는 등 광주시의 문서 관리 부실 의혹도 제기했다.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또한 위원 과반 미 출석으로 총 9회 중 7회(78%)가

비대면 서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민간수탁 기관의 재정보조비 미기입 사례도 전체 80건 중 9건이 발견됐다.

서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정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의회에서 감사 요청이 오면 준비하겠다"고 답했으며, 고광원 행정부시장도 "시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 최선국 도의원 "전남형 AI전략, 로드맵 시급"

### 인재양성 등 선제투자 주문

전남의 대표적 미래먹거리인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위해 '전남형 AI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전남도 전략산업국 결산심사에서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형 전략 로드맵 마련 등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는 AI 슈퍼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유치 등 디지털 기반 확충을 추진중이지만, 정작 AI 기



술을 주력산업 전반에 어떻게 접목하고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전남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스마트팜, 지능형 양식장 등 AI 기술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전문 인력 부족과 교육 인프라 미흡으로 인해 AI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문제

로 꼽았다.

그는 "광주가 AI 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인프라를 구축하며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전남은 AI 기술 융합 방향과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더딘 실정이다"며 "수도권 인재 유입에만 의존하는 전략에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지역 대학·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AI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AI와 재생에너지는 전남 미래 생존전략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디지털 전환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도정 차원의 선제적 투자와 종합적 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 이재태 도의원 "광주·전남 상생기구 개점휴업"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상생기구가 수년째 회의를 열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전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난 2014년 출범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매년 1~2차례씩 양 시도가 윤번제로 운영했지만, 2022년 7월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회의가 열리지 않아 관련 예산



5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됐다. 16개 공공기관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광주전남 공공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사실상 활동이 멈춰섰다.

이 의원은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혁신도시 시즌2 논의는 물론 지역 미래전략까지 좌초될 수 있다"며 "혁신도시 발전 전략 수립, 정주 여건 개선, 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협의체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근산 기자

## 민주 정청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4선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제가 당 대표가 돼 그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다. 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농심**

**자연정수기간 40 YEARS**

자연에서 40년을 거르고 걸러 신선하고 건강해진 백산수

좋은 물은 오래 걸립니다

천지차이 백산수